호시노재심 뉴스 179 후 2012 년 4 월 15 일발행

3·30 재심 기각 결정 탄핵

호시노씨 되돌려라! 재심을 시작해라! 과 분노의 구호 합창(2 월 5 일 도쿠시마 형무소포위 데모)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또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 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동경고등재판소의 재심기각 결정을 용서하지말라!
호시노씨는 무고! 즉시 이의신립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3 월 30 일 동경고등재판소 제 11 형사부(와카하라 마사키(**若原 正樹**)재판장)은 2009 년 11 월 27 일에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가 신청한 제 2 차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폭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호시노씨와 재심변호단은 4 월 3 일 불타는 분노로 이의신립을 신청했습니다.

의도적인 국가폭력을 용납하지말라

제 2 차 재심청구서(1) (2) (3)에 의해 호시노씨의 무죄는 철저하게 밝혀졌습니다. 무죄인 호시노씨에 대한 검찰관.국가권력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날조는 구체적으로 폭로되어 완전히 분쇄되어 있습니다. 동경고등재판소. 와카하라(**若原**)재판장은 끝까지 검찰관편을 들어 진실의 추구는 불구하며 "공평함"의 겉치레도 내팽개치고 "끝까지 호시노씨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폭력을 드러내고 있는것입니다. 무죄인 호시노씨는 이미 옥중 37 년! 그동안 가족도 자유도 권리도 빼앗겨 사회적 여러관계와 단절되어 왔던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미 하루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부정의하기 짝이없는 동경고등재판소의 폭거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호시노씨의 분노를 지니고 지금이야말로 호시노씨의 해방으로 사회에 소용돌이치는 "반원전 반실업 살게해달라!"라는 분노를 합쳐 총력을다해 싸웁시다. 이번의 "기각결정서"는 제 1 차 재심청구의 최고재판소 특별항고 기각결정(2008 년)과 작년 3 월의 검찰관"의견서"의 거짓과 속임수의 주장을 그 발자취를 밟은후에 날조 "홍술조서"의 거짓을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이츠쿠시마감정서(**厳島鑑定書**)"를 더 이상 말할수없는 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날조를 용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거기서 와카하라(**若原**)재판장은 "수사관에 의한 유도도 그것이 부당하지 않는한 기억을 되살리는 유효한 방법이 된다"고 완전히 적반하장이며 위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행하는 "기억의 되살림"이라고 하는 유도가 거짓 홍술로 유도시켜 얼마나 많은 원죄를 만들어 왔는가 뻔하게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카하라(**若原**)재판장도 구타자와 호시노씨의 복장색갈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Kr 의 홍술은 청구인 (호시노씨)의 복장의 색갈이 옅은 갈색

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이 포함돼 있다"고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그 직후에 Kr 은 목소리로 호시노씨를 식별할수 있었다고 억지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색갈의 차이는 단순한 부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Kr 증인은 투쟁당일 호시노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장의 색갈을 근거로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호시노씨라고 생각했다"고 홍술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너지면 Kr 홍술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각결정의 모두가 진실의 유린하에 성립되어있습니다. 이런 엉터리인 결정에의해 호시노씨가 지금도 강제적인 무기징역의 나날을 보내는 것에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들의 싸움을 전국에서 크게 발전시켜 반드시 호시노 후미아키씨를 되찾자.

토쿠시마(**徳島**)역전에서 긴급항의행동

4 월 2 일 토쿠시마 구하는 모임은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탄핵해 긴급 항의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측이 증거를 숨긴체로 내려진 기각결정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정말로 형무소에 들어가야 할 것은 어느쪽인가! 라고 분노를 폭팔시켜 호소했습니다.

"**항의처**"

도우교또(**東京都**)치요다구(**千代田区**)카스미가세키(**霞が関**)1-1-4

도우교코토우사이반쇼(東京高等裁判所)제 11 케이지부(第 11 刑事部)

"**격려처**"

토쿠시마시(**徳島市**)뉴타쵸(**入田町**)오오히사(**大久**)200-1

호시노 후미아키 님 星野 文昭 様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에 대한 보복탄압

외부교통 금지. 편지의 먹칠을 용서하지말라

2.5 토쿠시마형무소(**徳島刑務所**)포위데모에 타격을 받은 토쿠시마형무소는 엄청난 보복공격을 하고있다. 2 월중순 이후 호시노 후미아키씨와 형무소 외부의 친구와의 접촉 통신을 금지.제한하는 처분을 차례대로 해왔다. 아직 그 전모는 판명되지 않았으나 지금 알고있는것만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것이다. 하나는 2.5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를 선두에서 싸운 동지와의 접촉 통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것이 7 명이나 될 가능성이 있다. 면회 차입 편지의 수.발신등 일절 할수 없다. 아키코씨의 편지에도 이름이 기제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부분이 먹칠당하고 호시노씨에게 차입한 볼펜이나 주간지등이 형무소로부터 반송되어 온다. 두번째는 금지당한 편지가 5 통 2.5 투쟁을 기제한 부분이 먹칠당한 편지가 9 통이다. 더욱해서 재심뉴스 팸플릿 기관지등 조금이라도 2.5 투쟁에 관계가 있으면 전부 말소되고 맙니다.. 아키코씨의 편지까지 말소하는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외부와의 면회.통신은 수감자에게도 형무소 외부에 있는 친구에게도 누릴수 있는 권리인것이다. 수감자라해도 인간적 존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에서 37 년간이나 호시노씨하고 분단시키고 있는 옥사의 벽을넘어서 합류해 겨우 한몸이 될수있었다. 600 명의 동지가 굳게 단결했다. 외부와의 접촉.통신의 금지.제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로운 분단공격이므로

분노를 담아 탄핵한다. 토쿠시마형무소는 자유러운 외부와의 접촉.통신을 인정하라.
수감자를 사람 취급하라. 혹한의 추위인 형무소에서 탕파정도는 인정하라.
토쿠시마형무소의 탄압격화를 물리쳐서 호시노씨의 싸움을 절대로 지켜나가자.

"복귀"40 년과 싸우는

5.15 오키나와투쟁에 집결하자

"복귀"40 년을 맞이한 오키나와는 노동자인민의 분노가 더욱더 깊게퍼져 후쿠시마의 분노와 하나가되어 모든기지를 철거할때까지 멈추지않는 싸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노다정권은 세계대공황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일미 안전보장조약 동맹의 유지.강화를 기본노선으로 해서 기지를 오키나와에 떠맡기기 위해 획책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을 자신의 연명을 위한 노선으로 두고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제도(**南西諸島**)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기지"로서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 자위대(**自衛隊**)배비를 시작으로 육군 자위대 공군 자위대의 배비를 강화하고있다.
오키나와 노동자인민이 두번의 총파업으로 싸운 오키나와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텐마(**普天間**)기지의 이전을 둘러싼 헤노코(**辺野古**)신기지 건설은 15 년에 걸치는 실력투쟁으로 날마다 저지당한 것처럼 오키나와에 새로운 기지따위는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하는 싸움은 일미 제국주의의 앞을 가로막고있다. 호시노 후미아키씨의 옥중 37 년간의 불굴의 싸움은 이 오키나와투쟁을 40 년간에 걸쳐 관철해 지금 그 싸움의 최첨단에 우뚝서는 싸움입니다.
그야말로 호시노투쟁은 안보.오키나와투쟁 그 자체인것 입니다. 2.5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는 노조교류센터에 결집하는 노동자가 호시노씨와 하나가되어 안보.오키나와투쟁을 싸울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은 "복귀"40 년을 맞이하는 오키나와현지를 향해
호시노투쟁=안보.오키나와투쟁을 싸워 호시노씨를 되찾읍시다.

1969 년 6 월 5 일 전오키나와 주류군 노동조합 2 만명이 24 시간 파업에 돌입!
총검 자세를 취하는 미군병사와 대결하는 파업 감시대

토쿠시마면회 일기

즐거운 대화의 한때-가족면회

호시노 아키코

3 월 5 일 정문앞에서 호시노 하루오씨 호시노 아키코씨

3 월 5 일 이날은 후미아키의 형인 하루오(**治男**)씨와 같이간 면회였다. 아직 쌀쌀했지만 형무소 주변의 매실나무꽃이 피기 시작해 봄이 오는것을 알리고 있었다. 하루오씨는 일년 수개월만의 면회였다. 건강의 상태나 가족.친척에 대해서가 중심인 면회가 되었다. 후미아키는 "올해는 토쿠시마에 온뒤로 제일 추운 겨울이었다. 65 세 이상이되면 매트리스를 나눠줘. 등바닥이 추워서 잠을 못자는 일이 없어져서 좋아"라고 말했다. 건강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혈압이 170-140 정도야. 한때 2 주간동안 공장에서 하루 두번 혈압을 재고 있었다. 맞지않는 혈압약을 먹고 세상을 떠난 수감자도 있어서 약을 먹는것은 신중히 하고싶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물을 마시게 된 후로부터 심장이 아픈것도 두통도 사라졌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부스럼은 스테로이드제를 부실하게하면 악화되므로 정성스럽게 바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루오씨는 작은어버지인 호시노 시로(**星野 四郎**)씨가 별세 하신것을 전했다.
"90 세 벌써 그런연세셨던가. 누마노하타(**沼ノ端**)에 가서 차를 태워주신분이 언제나 시로씨였던것 같다"며 후미아키는 그리워했다. 하루오씨하고 결혼한 카오리(**香里**)씨에 대해 후미아키는 "하루오는 자신이 아닌 카오리씨가 만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동생인데도 타이르듯 말했다. 하루오씨도 지지않고.
"후미아키도 빨리 나올생각을 해야한다.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 싫은부분도 보이게된다.
후미아키와 아키코씨역시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같이살면 부부싸움도 하게될거야"라고 말했다.
"서로 만족할만한 면회를 할 수 있게 된것은 최근이야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것을 그만두고 아키코의 말을 듣도록 했기때문이야"라고 후미아키는 형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즐거운 이야기의 나눔의 한때였다. 면회후 추위대책으로 난로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다.

자기 해방성 넘치는 데모

3 월 6 일 나 혼자의 면회였다. 2.5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의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어 감상을 한동안 주고 받았다. 37 년간 무기수로 옥사에 갇혀있는 사람과 마주하며 행하는 데모는 보통 데모와는 틀리다.

분단을 타파하는 자기 해방성 넘치는 데모였다. 후미아키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크다 그 분단을 정면으로부터 응시해 데모라는 형식으로 몰두할때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는지를 가르켰다. 태어나서 처음인 큰 감동이였다는 사람도 있었다 등등. 데모에 성공해서 다음 무대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각지의 구하는모임 모두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다" "회화전에서도 거리선전활동에서도 지금과 다른 한발자국을 내디디는 데모의 감동을 실현하는 형식으로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다. 후미아키는 "재심기각공격에 대해 기각되지 않고 증거개시를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5 데모에 관한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 두번다시 그런일이 없게 하고싶다는 것이겠지. 편지 자체가 오지않는것도 있고 먹칠당한 편지도 있다. "젠신(**前進**)"에도 2.5 데모의 보고가 처음 기제되었던 호는 왔지만 다음호는 시간이 걸렸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국가배상에 넣는것도 포함해 변호단이나 사무국과도 논의 할것을 약속했다. 피재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은 이번에 나에대한 편지보다 그림을 우선적으로 그렸으니 완성하면 택배로 보낸다고 후미아키가 말하며 면회를 마쳤다.